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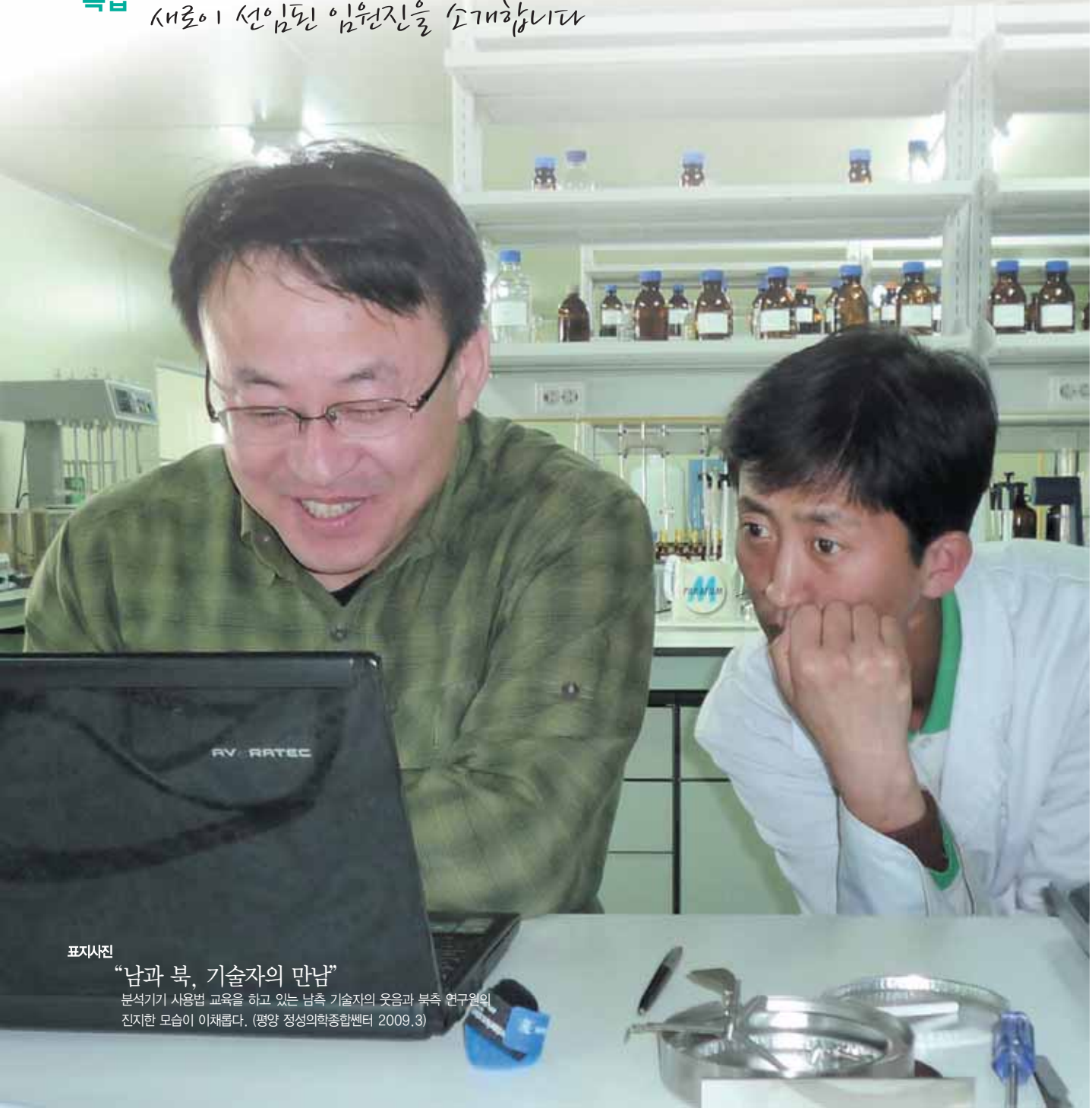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9 1.2.3 통권 제68호 www.ksm.or.kr

특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2기 임원 선임

새로이 선임된 임원진을 소개합니다



표지사진

“남과 북, 기술자의 만남”

분석기기 사용법 교육을 하고 있는 남측 기술자의 웃음과 북측 연구원의
진지한 모습이 이채롭다. (평양 정성의학종합센터 2009.3)



목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권두언	03	12기 활동에 거는 새로운 기대
특집	04	새로이 선임된 임원진을 소개합니다
기고	06	재생에너지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고찰
연재	08	아이들 인사로 시작되는 북한의 설
칼럼	10	거꾸로 가는 남북관계 시계바늘
이동급식 지원	13	남에서 보낸 선물, 북에서 보내온 선물
보건의료 지원	14	2009년도 북한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힘찬시작
고려인 지원	16	“고국의 농업기술 배우러 왔어요!”
인턴소개	1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반갑습니다
사업일지	22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후원자명단	24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9년 1+2+3월호 통권 제68호 | 발행인 | 영 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 편집인 | 강영식 | 발행일 | 2009년 3월 30일
| 주소 |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 전화 | 02)734-7070 | 팩스 | 02)734-8770
ksmseoul@ksm.or.kr www.ksm.or.kr | 디자인 및 인쇄 | 인디디자인

【교문】 강문규, 김성훈, 박경조, 서영훈 【상임대표】 영 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공동대표】 고희선, 김영수, 김현수, 박남수, 박원철, 박준영, 윤장현, 이수구, 이용선, 정 여, 정의화, 천정배, 최대석 【감사】 김영환, 전 성 【사무총장】 강영식

12기 활동에 거는 새로운 기대

지난 3월 27일, 앞으로 2년간 우리 단체를 이끌어 갈 제12기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제12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6년 범국민캠페인으로 출범, 밀가루 5만포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의 활동은 그동안 농업과 보건의로, 아동급식,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지원 사업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나눔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책캠페인 활동 역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활동과 외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13년 전의 상황과 같이 불확실한 대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인도적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지원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한 단계 진전된 남북간의 평화로운 협력과 통합의 길을 새롭게 모색해 나가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2008년 출범한 현 정부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남북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가 없이는 그 어떤 원칙도, 그 어떤 정책도 구현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도 남북교류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떠나 남과 북의 평화 공존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상호 신뢰와 평화는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반면 이를 지켜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없을 때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와 평화 기조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대화와 포용은 그 어떤 원칙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향후 5년 동안 북한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북한 내의 문제 해결 역량을 구축하고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추동하여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과 상호 이해의 원칙에 입각

한 남북관계 발전을 일관성있게 주창하여 '평화로운 남북 통합'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실현하여 사업의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리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여가는 스스로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제12기 활동에 회원여러분들과 후원자님들의 한결같은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3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영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2기 임원 선임

새로이 선임된 임원진을 소개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3월 10일 상임위원회와 3월 27일 제 61차 공동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을 이끌어 나갈 제 12기 임원진을 선임하였습니다.

고문



강문규
前 상임대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성훈
前 공동대표
환경정의 이사장



박경조
前 공동대표
대한성공회 대주교



서영훈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공동대표



영담
불교방송 이사장



윤여두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일영
아주대 의대 교수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공동대표



고희선
농우바이오 회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외과 교수



김현수
대한한 의사협회 회장



박남수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원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준영
을지대 총장



윤장현
광주전남본부 이사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용선
前 운영위원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정 여
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범어사 주지



정의화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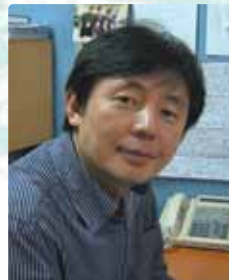


천정배
국회의원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감사



김영환
공인회계사



전 성
변호사 / 우리동포 소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의 지원으로 개성시 개풍양묘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

재생에너지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고찰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최근 우리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추진 과정상에 다소간 논란은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사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공동의 발전전략으로 모색해 보면 어떨까. 알려져 있듯이 피 북한의 에너지 부족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대북지원 과정에서 경험하였지만 북한에 병원을 지원하거나 어린이를 위한 영양식품 생산설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항상 걸리는 문제가 전력이다. 수시로 정전이 되고 사용전력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계획했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북한 정부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에 에너지 수급문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북한을 사이에 둔 국제관계에서나 남북관계에서도 대북 에너지 지원이 중요한 의제가 되어왔다.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대북에너지 지원방식은 경수로 발전소 건설, 200만 kw 송전, 러시아-북한 송전, 중유100만톤 등이다. 이러한 지원방식이 제기된 이유는 절대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중유, 전력, 송전 등과 같은 에너지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전력의 40%를 원자력으로 해결하

최근 선진각국은 지구온난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지역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남한만 하더라도 원자력 에너지 비중이 높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인 고립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재생에너지 발전과 잘 연계시키면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고 있고 높은 석유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남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에서 볼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 이러한 지원방식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중유 지원만 일부 성사되었고 나머지는 검토단계에서 또는 발전소 건설 중간에 폐기되거나 중단된 실정이다. 하지만 세계사적인 에너지 사용흐름과 환경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전력지원 방식이 과연 효과적이고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이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방식인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경제적인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몇가지 특징이 있다. 높은 에너지 자립도와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다. 에너지자립도는 무려 94%에 달한다. 남한은 에너지 자립도가 5%정도이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는 비중이 94%에 달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수력과 석탄 위주의 단순한 에너지 공급구조이다.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가능한 수력과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전체 에너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력발전은 겨울철에는 비가 오지 않아 발전용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전력공급이 급격히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석탄과 수력에 의존하는 높은 에너지 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보다는 지역 분산방식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효과적이다. 거기에 발전시설 자체가 노후와 되고 송배전망도 낙후되어 발전효율이 매우 낮다.

그런데 최근 선진각국은 지구온난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지역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

다. 남한만 하더라도 원자력 에너지 비중이 높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인 고립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재생에너지 발전과 잘 연계시키면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 분야다. 이 문제는 남쪽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남한의 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정도는 아니나 태양광, 풍력, 소수력 분야는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이고, 바이오분야도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소 발전량이 떨어지더라도 극심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는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를 공동개발 한다면 재생에너지 분야를 세계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남북협력은 우선 북한의 전력공급에 안정성에 기여하고 남한의 재생에너지 산업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녹색에너지 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후협약에 따른 탄소 배출권 거래에도 이득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세계적인 에너지 사용흐름에 남북이 공동협력을 통해 대처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협력을 함께 함으로써 남북의 협력과 화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최근에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이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과 협력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북쪽과 협력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활동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아이들 인사로 시작하는 북한의 설

정민숙 새터민, 가명

"창이 일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두운 새벽공기를 깨트리고 울리는 동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와 함께 북한에서의 설은 시작된다. 늘 뒤편지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이맘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줄 사탕이나 과자 마련에 남달리 신경을 더 썼던 기억이 난다. 북한에서 설을 잘 보내려면 며칠 전부터 설음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한해 몇 번 안 되는 큰 명절이라 나라에서 배급도 있지만 워낙 공급량이 적다. 평양시의 경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와 술·담배, 기름을 비롯한 탕·과류, 약간의 과일채소로 끝난다.

대부분의 먹을거리는 시장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직장에서도 종업원들에게 식료품을 자체 구입해 나눠주기도 한다. 북한에서 설음식 중 떡을 빼놓을 수 없다. 어느 집이라 할 것 없이 떡을 먹어야 하기에 동네마다 간간히 있는 방앗간 문 앞은 며칠 전부터 떡가루 그릇들이 줄을 서고 있다. 이렇게 준비한 재료로 가정에서는 밤새 송편을 빚기도 하고, 경단이나 찰떡, 만두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된 식량사정은 설을 비롯한 명절에도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못해 떡을 해먹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러스트 봉사 김경진

북한은 설날에 차례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온가족 모두 불편한 교통을 마다하고 먼 길을 걸어 김일성동상(만수대)에 찾아가 목례를 드리고 오는 것을 집안의 기풍으로 세우기도 한다. 설날 아침 직장 과 단위별로 만수대 동상을 찾아가 꽃바구니를 드리는 증정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북한에서 꽃바구니 증정은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심으로 표현된다. 물론 여느 때도 꽃다발을 들고 동상 앞에서 목례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아침행사가 끝나면 가족들은 시내주변 가까운 곳에 사는 부모집이나 친척나들이를 간다. 맛있게 빚은 송편 한 소랭이(작은 그릇)를 정성스럽게 싸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고 세배 돈을 받는 손자손녀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지방에 있어 갈 수 없고 불편한 교통상황으로 짧은 설에 고향나들이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찾아뵙기 어려운 부모님과 친척, 친구, 잊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신년연하장으로 서로 새해 설 인사를 대신한다. 연하장은 정성들여

북한의 농촌이나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는 재미있는 관습이 있다. 새해에 집안에 복이 들어오게 하려면 첫 문을 일찍 열어야 한다는 관습이다. 이로 인해 아낙네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자정이 넘기 바쁘게 물동이를 쥐고 밤새 우물을 길어 물독을 채우기도 하고 남자들은 한해 농사 잘 짓기 위해 텃밭 일 등을 날 밝을 때까지 한다. 이런 관습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70~80년대 국가규정에서도 드러난다. 양력설 첫날은 다양한 행사로 보내고 둘째 날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보내는 새해 신년사를 청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의무적으로 직장출근을 하도록 하였고 자정부터 새해 생산 활동에 들어가도록 규정하였다. 또 북한은 90년대 들어 명절 전후를 특별경비주간으로 설정하고(명절 이틀 전과 이틀 후) 각 공장·기업소와 동네까지 비상경비에 들어가도록 했다. 각 단위 책임자들은 명절연휴가 끝날 때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에 하나의 사건



만들기도 하고 우편국에서 많이 구입해 한해 성과와 가정의 행복을 정성들여 써 보낸다. 희귀한 설 선물이나 변하지 않은 음식물들은 소포로 친척, 친구들에게 보내기도 한다.

평양시를 비롯한 큰 도시들에서는 즐겁게 설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조직하고 도로 곳곳에 설을 축하하는 등과 함께 인공기(북한의 국기)가 걸린다. 또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팽이돌리기와 스케이트 타기, 썰매, 옷놀이 등을 하고 극장에서 새로 나온 영화를 관람하기도 한다. TV와 방송에서 유치원어린이들이 준비한 신년축하공연을 비롯한 각종 예술단들이 출연하는 신년 음악 프로그램과 일상으로 잘 보여주지 않은 북한의 설 풍경을 형상한 기록영화들을 보여 준다. 이밖에 기관단위별로 여러 가지 정치행사를 조직하는데 자체 실내운동대회나 장기 뜨기, 옷놀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속놀이, 재밌는 오락 활동도 만들어 즐기도록 한다.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세우고 미연에 방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사건사고란 절도나 범죄보다는 나라밖에서 있을 수 있는 공격(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파괴행위)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4대명절로 설(음력설), 단오, 한식, 추석이 있다. 과거 북한은 신정(양력설)과 추석만 민속명절로 보내다 1989년부터 음력설과 단오를 포함하여 쉬도록 하였다. 이후 2003년부터는 양력설을 대신해 음력설을 설명절로 정하고 3일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

올해도 북한은 양력설을 하루 쉬고 음력설을 3일간 보냈다고 한다.

정민숙님은 2004년 한국에 온 새터민으로 64호부터 연재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남북관계 시계바늘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김영삼 정부 때보다 더 험하디요”

지난 2월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났을 때는 마침 1월 17일 북한군 총참모부의 '전면 대결태세 진입'과 1월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남북 간 정치군사적 합의사항의 무효' 선언이 있던 직후였다.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지기 직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북측 인사에게 물었다. 지금 남북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냐고, 김영삼 정부 시기와 비슷한 것 아니냐고? 이에 대해 북측 인사는 단호하게 “현 정세는 김영삼 정부 때보다 더 험하디요.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빴던 적은 없디요”라고 대답을 한다.

김영삼 정부 때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긴박한 순간이 있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개전 90일 이내에 한국군 50만 명, 미군 5만 명, 남측 민간인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피해 규모도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측의 피해까지 감안하면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설 터인데, 이는 남북한 총 인구를 7천만 명으로 볼 때 7명 중 1명이 죽거나 다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다행히 김영삼 정부 때 작동되던 전쟁 시계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가까



요즘 뜨는 인디 밴드인 장기하와 얼굴들은 '먹살 한번 잡히십시다'라는 노래에서 '당신 땀에 잘못됐으니 변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먹살 한번만 잡아보자고 외친다. 변변한 고용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빈곤층으로 내몰리게 된 청년세대들이 기성세대에게 던지는 가슴속 향연의 말로 들린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물으면서 똑같은 말을 할지도 모른다. "남에서 지원하던 식량과 비료로 그나마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중단해 버릴 수 있냐고?" 그리고 "남북관계가 틀어지고 군사적으로 긴장되면 우리네 같은 평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몰랐냐고?"

스로 전쟁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멈춰 섰다. 그런데 북은 지금의 정세가 김영삼 정부 때보다도 더 험하다고 한다. 북한은 2월 19일,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렀으며 물리적 충돌만이 시간문제로 남아 있다"고 경고하였고, 3월 9일에는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 간 군통신선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0년 6. 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 설치되어 9년 동안 운영되어 온 핫라인과 군통신선이 일시적이긴 했지만 모두 끊긴 것이다.

대북 강경발언은 남한에서도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발언하여 북한을 자극하였고, 이상희 국방장관은 금년 2월 20일 국회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 타격지점을 공격하겠다고면서 일선불사의 의지를 밝혔다. 불충분하긴 했지만 우발적 충돌과 그것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신뢰와 군사적 장치들은 사라졌고, 1년도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에 한반도는 아주 위험한 분쟁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위협’의 상징으로 되돌아간 북한 속 ‘대한민국’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앞으로도 별달리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북한 당국이 한국 상품 및 (한류) 문화에 대해 경계심이 이완되어 있는 북한 사회와 주민들을 바짝 조이기 시작하였다. 북한 내 시장에서 한국 상품들의 판매가 금지되고 중국 국경을 통한 한국 상품의 반입은 중단되었다. 평양에서 운행되던 한국산 자동차는 모두 지방으로 옮겨져서 평양에서는 그림자도 찾기 어려워졌다고 하고,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한국 드라마나 영화 DVD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할 땐 북한 주민들이



春來不以春? 추위에 얼어붙은 대동강. 대동강 얼음은 이미 녹은지 오래인데, 현재의 남북관계는 계절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9. 1)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리면 구두 경고를 받거나 벌금을 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 상품은 “신발, 내의 까지도 한국 것이라면 중국 새것 보다 한국 중고가 3배정도 높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은 북한에서 ‘위협’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냉전 시기에 남한에서도 ‘북조선’과 연관된다는 것은 불온하고 매우 위험천만한 것으로, 신체의 구속, 자유의 박탈, 생명의 위협, 가족의 해체 등과 같은 비극적 결과를 낳곤 하였다. 그 시기에는 ‘막걸리 국보(國保)’라고 해서 술집에 한 이야기를 꼬투리 잡아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간첩 조작 사건도 가끔씩 있었다.

지난 10년 간 북한 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남한에 대한 적대적식이 약화되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 상품과 문화에 친숙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9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선, 다른 나라에선 역사의 유물이 되어 버린 ‘냉전의 시계’가 1989년 이전을 향해 짹짹 돌아가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남한은 무엇이어야 하나?

작년 봄에 평양에 갔을 때이다. 우리 일행의 숙소인 양각도 호텔에서 조선적십자병원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평양역 방면으로 가고 있는데, 크고 선명하게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하얀 쌀 포대 하나를 신고 가는 리어카를 보았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30대 후반 정도의 여성이 뒤에서 쌀 째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마도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상상이 안 될 것이다. 1960년대나 70년대에 보릿고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나 자신




남측의 쌀지원(2007. 9. 원산항)

들의 삶의 기억에서 북한의 현재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 주민에게 남한은 충분치는 않았지만 쌀이었고, 비료였고, 병원이었고, 의약품이었다. 또한 북한 주민에게 남한은 개성공단에 취업을 하거나 종합시장에서 한국 상품을 판매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웃이었다.

요즘 뜨는 인디 밴드인 장기하와 얼굴들은 ‘떡살 한번 잡히십시다’라는 노래에서 ‘당신 땀에 잘못됐으니 변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떡살 한번만 잡아보자’고 외친다. 변변한 고용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빈곤층으

로 내몰리게 된 청년세대들이 기성세대에게 던지는 가슴속 항변의 말로 들린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물으면서 똑같은 말을 할지도 모른다. “남에서 지원하던 식량과 비료로 그나마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중단해 버릴 수 있냐고?” 그리고 “남북관계가 틀어지고 군사적으로 긴장되면 우리네 같은 평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몰랐냐고?”

정부는 이제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언제까지 쌀과 비료를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은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고집하지 않으면 방법은 많다. 현재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0여 개에 이르고 민간단체도 수십 개가 존재한다. 이들에게 정부가 쌀 및 비료를 제공해서 대북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많이도 아니고 이전 정부가 지원했던 5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쌀 10만 톤과 비료 5만 톤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남에서 보낸 선물 북에서 보내온 선물

현지연 자원개발팀 간사

겨울점퍼, 내복, 털모자, 목도리, 장갑, 양말, 털신, 담요... 후원자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겨울옷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25일, 1월 23일 함경북도 온성군의 1,100여명의 아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급식자재와 함께 겨울옷, 겨울용품을 보냈어요. 내복 하나만으로 감기를 예방, 사소해 보이지만 단체생활을 하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내복, 모자 하나 하나가 건강과 직결됩니다.

든든하게 밥을 먹고~ 친구들과 밖으로~밖으로~! 햇빛을 보면 비타민D도 생성! 건강해지는 몸! 후원자님의 나눔으로 더 이상 아이들이 날씨가 추워 유치원 안에서만 웅크리고 겨울을 보내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희망의 별을 선물하세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선물, 지난 11월에 이어 함경북도 온성군인민위원회 해외동포영접과에서 고비, 고사리, 참나무 목이버섯 등을 보내왔습니

다. 북쪽에서 보내온 선물을 많은 후원자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맛보고 싶은 가족, 친구, 유치원, 회사 등 고비, 고사리, 버섯을 받고 싶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후원회원 및 신규 후원회원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의 옆서 및 홈페이지(www.ksm.or.kr)를 확인해주세요.



사무처 동향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6년 9개월 동안 대북지원(농업) 사업과 자원개발(회원개발관리) 사업을 담당했던 신호 부장이 2009년 1월 31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헌신한 신호 부장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에 강승희 인턴이 3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인턴 직원으로 근무합니다.



북측 연구원에게 기술교육중인 남측 제약 기술자(2009. 3)

2009년도 북한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힘찬시작

이예정 남북협력사업2팀 부장

지난 9월 준공한 정성의학종합센터 품질관리실의 일부 미설치 기기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고 관련 교육 진행, 그리고 품질관리실 전반의 운영 상황 점검을 위해 추진했습니다.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은 지난 해 9월 21일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이래, 품질관리 부문이 크게 강화되어 현재 정성의학종합센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한 품질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한 제약 부문이 한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한미군사훈련으로 모든 방북이 중단된 이래 첫 민간 단체의 평양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방북은 지난 9월 준공한 정성의학종합센터 품질관리실의 일부 미설치 기기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고 관련 교육 진행, 그리고 품질관리실 전반의 운영 상황 점검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은 지난 해 9월 21일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이래, 품질관리 부문이 크게 강화되어 현재 정성의학종합센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한 품질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한 제약 부문이 한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보건 의료 지원사업은 크게 정성의학종합센터와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대한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성의학종합센터의 경우 작년 품질관리실 설치에 이어 동물실험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물실험은 의약품 안정성 검증을 위한 주요 단계로 완제의약품을 동물에 직접 투여하게 합니다. 이 실험은 특히 수액 및 주사제 품질 검증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대한약전에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정성의학종합센터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원한 수액약품공장(링거액), 알약품공장을 비롯하여 유로키니아제공장, 병주사제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공장에서 생산하는 약품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동물실험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난 3월 말 방북에서는 정성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준비한 동물실험실 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4월이면 전체 배치와 공사 일정, 운영 계획 등을 확정하고 5월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실험실 설치와 함께 올 해에는 알약품공장과 종합품질관리실에 대한 유지소모품을 지원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사업은 임상검사소 현대화와 구강 부문의 교정실, 보철실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상검사는 질환의 진단과 병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적십자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병원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임상검

사소 전반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가장 필요한 설비와 비품, 임상 시약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강 부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범 치과계의 연합체인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지원사업에 있어 물자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설비가 있다 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 해는 각 사업에서의 교육 부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GMP 교육과 함께 기기의 유지 보수, 품질관리분석법 등을 전수할 예정이며 적십자병원도 당뇨, 부인과 질환 등 특정 임상검사 부문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북한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강과의 교정, 보철 부문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때문에 남측의 치과의사, 교정/보철 기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8년 9월 준공된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내부

연초 남북간 냉랭한 기류로 인해 2009년 보건 의료 지원사업이 이제야 본격화되었습니다. 비록 조금 늦게 시작됐지만 북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올 해도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국의 농업기술 배우러 왔어요!”

한국초청 고려인 동포 시설농업기술 연수

정유정 해외사업팀 간사



장사의 선생님과 함께한 고려인(필자 좌측에서 세번째)

볼고그라드와 라스토프의 우리동포 고려인 10명

올해초 1월 11일, 고려인 10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한국 초청 고려인동포 농업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볼고그라드와 라스토프에서 각 각 선발되어 한국의 시설농업현황과 농업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자 고국을 방문한 것이다.

고려인 농업기술지원 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농림부, 외교통상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2006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다. 한국의 시설농업 기술과 교육을 전수하고, 현지실정에 맞는 시설영농기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농업전문가를 파견하고, 고려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시설농업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차년도에 5명의 고려인을 시작으로 7명, 10명으로 늘어가는 연수생을 보면서 시설농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본질(임대농사) 농사에 익숙한 이들에게 처음으로 비닐하우스·시설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

다. 과거 유리온실에 익숙한 이들에게 한국의 시설농업은 낯설고, 보편화 되지 않은 생소한 농사방법이었고, 더욱이 비싼 하우스 자재와 임대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내 땅이 아닌 곳에 값비싼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시설농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의 시설농업에 대한 기술 및 교육전수, 현지 실정에 맞는 다양한 농법 등을 고민하고 시설농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시설농업을 통한 과채류 생산 및 수익구조 등을 알려주자, 비닐하우스에 대한 관심과 일찍 과채류를 생산하고자 초보적인 수준의 규격화되지 않은 형태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39일간의 시설농업 연수 프로그램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10명의 고려인 연수생들 역시 시설농업에 대한 관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많으신 분들이었다. 농촌공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시설농업 이론 강의와 평택, 부여, 아산, 이천, 평창, 춘천, 강원도 농

업기술원 등의 산업시찰, 춘천 호반육묘장과 강릉에서 현장 실습 속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요청하였다.

당장이라도 파프리카라도 심을 기세로 비닐하우스 만드는 기술, 파프리카·딸기·오이·토마토 등 다양한 종류의 과채류들을 재배하는 방법, 농가방문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춘천 호반육묘장에서의 현장실습과 더불어 강릉 지역의 현지 농가들을 방문 하여 과채류 재배현장을 직접 보는 현장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이론 강의 및 현장 실습이 끝나면 숙소로 돌아가 그날 배웠던 내용들로 러시아 현지의 환경과 농법을 비교하면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서울과 경기도, 춘천, 강릉에서의 이론과 현장실습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수원에서의 마늘, 배추, 딸기 등의 작물재배 이론 강의를 끝으로 이들의 길고도 짧은 39일간의 연수일정은 마무리 되었다.

다시 만난 소리꾼 장사의

소리꾼 장사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썰레꽃 향기 가득한 세상'이라는 모임에서 연락이 왔다. "올해도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이 오셨나요? 시간이 괜찮으면, 고려인들을 초대해서 장사의 선생님 공연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초대전화에 놀랐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했다. 작년에 이어 잊지 않고 초대해주셨으니 응당 가야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소리, 한국의 문화를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올려내는 장사의 선생님의 공연은 한국 전통음악, 소리에 낯설어하는 고려인들에게 어찌보면 가장 친숙하게 우리의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었다.

저 멀리 광주에서 유학하고 있는 심 이리나에게도 좋은 공연이다 싶어 불러내어 함께했다. 회원들의 장기자랑에 박장대소하고, 국악 아카펠라 솔리스트 그룹의 환상적인 공연과 젊은이들로 구성된 신나는 사물놀이 공연, 해금연주, 장사의 선생님의 공연을 보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늦은시간까지 계속된 공연이었지만 한국의 전통문화와 놀이문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서둘러 갈 채비를 하는 우리들에게 기념선물까지 챙겨주신 세심함에 다시 한번 장사의 선생님과 회원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다시 러시아로

2월 18일, 고려인 동포들은 39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러시아로 돌아갔다. 무엇을 얼마나 보고 갔는지는 그들의 몫일 것이며, 그들에게 남겨진 과제 또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얼마나 러시아 현지에 맞게 적용하여 시설농업을 할 것인가' 일 것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시설농업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았다면 남은 것은 이 소프트웨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와의 결합일 것이다. 이번에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에서 볼고그라드로 지원된 20여동 분량의 비닐하우스와 농림부와 외교부에서 라스토프로 지원하는 여섯동의 비닐하우스가 바로 이들의 하드웨어로 작용하여 새로운 도전과 시작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시설농업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들이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익혀가면서 더 이상 한국의 지원 없이도 그들 스스로가 시설농업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반갑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처에는 7명의 인턴직원이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제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인턴직원들의 체험기를 담았습니다.

내안의 변화를 불러온 2개월

강윤승 한국외대 영문학 3년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여라)

흔히 북한이라는 말을 접하였을 때, 동포라는 느낌보다 냉혈의 적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 따라서 남북문제의 해결점은, 북을 압도할 국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토록 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던 나에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의 인턴 생활은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킨 값진 기회였다.

이따금 찾아오는 북한의 도발을 보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매일 퍼주기만 하니,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발하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이제 지원을 중

단해야 한다." 사실, 나 역시 크게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대북 지원 사업을 하는 현장에 직접 있어보는 것만으로도, 지원 사업은 정치적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동포애로써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며 나의 굳은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다. 물론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각종 도발 등의 문제는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정권은 분명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동포를 외면해서도 역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업무는 고려인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동포애라는 단어를 더욱 친숙하게 만들어 주었다. 직접 고려인들을 만나 뵈 기회도 있었고 카페도 운영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동포라는 단어를 가슴에 안고 다양한 활동을 하니, 어느덧 그 단어는 책에서의 단어가 아닌 현실의 단어가 되었다.

자유를 가진 자의 최대 책무는, 자유를 가지 못한 자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유라 함은, 마치 역사적 철학자 등이 갈망하는 위대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는 자유, 방학 때 내가 하고 싶은 인턴을 하는 자유, 개강하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역시 아직 세계적으로 보면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아직 수 많은 동포들은 북한에서나 구소련 지역에서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의 2개월간 인턴 생활은, 그들을 도와줄 '필요성'을, 그들을 도와줄 '의무'로 바뀌도록 해주는 값진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인턴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 주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만남, 변화의 소리를 듣다

정치혜 한양대 행정학과 4년

정치외교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한 이후 북한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북한자료를 접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또한 북한을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직업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4학년으로써 취업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긴 고민 끝에 일단은 시작하고 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수님께 북한에 관련된 단체 소개를 부탁드렸고 그렇게 소개받은 단체가 바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다.

처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소개받았을 때만 해도 지금 인턴활동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북한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심했으며,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감이 오질 않았다.

처음 접하는 일들이 손에 익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인턴활동이 다른 분들에게 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사실 나의 인턴업무는 자료를 찾거나 정리하는 일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자료들은 해외에서 출판된 것들이 많았으며, 우리나라 정부의 자료는 상당 부분이 비공개였다. 이러한 한계와 내 능력의 부족으로 이종무소장님께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인턴활동은 모두 다 놀랍고 새로웠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후원자가 많다는 것이었다. 매일같이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셨으며, 작은 돈이지만 북한의 사람들 혹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위해 도움을 주셨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대단하거나 훌륭한 사람만이 북한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내가 커다란 무언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자료를 찾거나 정리하는 활동 혹은 북한 관련 NGO를 찾는 일로도 충분히 남한과 북한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북한은 그리 먼 존재가 아니었으며, 북한과 관련된 일은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깨달음 덕분에 나는 북한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다.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을 하고 싶어졌다. 이러한 활동의 첫 발을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내딛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직원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그저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직원분들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변화시켜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내안의 또 다른 현실을 보게 한 한달

김동을 국민대 건축학과 4년

우리는 누구나 눈앞의 현실만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역사에 의한 환경적 배경으로 우리 국민은 그러길 강요받으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와 나란히 길을 걷고 있는, 가깝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서로간의 협력과 도움으로 얼마나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자각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현실 속에 남들보다 먼저 눈을 뜨신 분들이 여기 계신다. 바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다. 한 달여간의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업무적으로 이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미비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그러했고, 어쩌면 주제넘게도 나도 도움이 될테야 라는 얇은 생각에 도전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한가득 많은 것을 얻어가는 흐뭇하지만 죄송스럽기도 한 한 달이 되었다. 등한시한 현실에 대한 교육과 구체적인 대북사업의 모델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에 보호받고 살아온 우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한 국가로서의 배타적인 사상이 아닌 더 넓게 한 민족, 우리 겨레, 결국 우리들 스스로를 위한 필수적 실천사항임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늘 곁에 있었지만 현실 때문이라는 핑계로 간과하고 말았던 우리 안의 또 다른 현실을 일깨워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크나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반도, 통일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Jasmine Barrett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단념한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60년 동안 한반도는 변함이 없었고 통일을 위한 변화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나는 60년 동안 한반도 상태는 꾸준히 바뀌어 왔다고 대답한다. 어떤 사람들은(특히 젊은사람) 한국사회가 통일에 대해 찬성하지 않아서 통일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고 있는 것은 이미 1948년에 시민들이 찬성하지 않았는데도 분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통일에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결국에 관계가 없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세력, 상황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밝은 미래가 될 수 있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3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 양쪽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쪽에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남쪽에는 이해와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가난문제, 식량문제와 인권문제는 심각하다. 이 문제에 도전하려면 낙천적인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이라는 퍼즐을 완성하는 곳

표니혜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3년

2008년 송년회와 함께 시작한 인턴 생활이 벌써 새해 한달을 훌쩍 넘었다. 연말연시를 이곳에서 보내면서 끊임없는 문의와 여러 작업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는 사무처분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북한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통일. 어느 것 하나 우리 단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퍼즐 조각들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통일'이라는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한다.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그런데 이곳에서 완성 후의 퍼즐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그 조각들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현재 자원개발팀에 속해서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정리하고, 통일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일 외에도 우편물 발송, 메일링 소식지 디자인 등을 도우면서 작게나마 보조하고 있다. 작은 일들이지만 이런 과정들이 한반도 통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더불어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 속한 분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인턴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 민족 두 개의 나라를 이어주는 오버랩 같은 곳

유동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석사과정

내가 하기 쉬운 얘기부터 하겠다. 영화에서 서로 다른 두 장면을 연결하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냥 붙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장의 그림을 겹쳐 놓는다. 겹쳐 놓는 방식을 '오버랩' 혹은 '디졸브'라 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두 장면을 겹쳐서 표현하면 이질적인 배경과 인물들이 연속성 속에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오버랩'의 반대편에 '점프 컷'이 있다. 연속성을 노리는 겹쳐 놓기와는 정반대로 '점프 컷'의 느낌은 불안하다. <여고괴담>의 복도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시점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점프 컷'을 보고 있으면 마치 미치광이의 눈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효과 때문에 '점프 컷'은 호러 영화에 자주 쓰인다.

지금의 현실을 굳이 호러에 빗대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요즘 들어 신문이나 TV의 대북 관련 기사를 보면 '점프 컷'을 보는 것 마냥 불안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곳에 와 있으면 차가운 대립만이 현실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직 이름처럼 '서로 돕는' 단계까진 아닌 듯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북쪽 사람들이 기른 농작물이나 그들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보고 싶노라면 북한이란 이름보다 사람 사는 곳이란 '이름'이 먼저 다가온다.

나는 영화학도다. 전공에 흥미를 잃어갈 무렵 이곳에 왔고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분단의 이미지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 인턴 활동을 했지만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받기만 한 꼴이 됐다. 운이 좋다.

나는 특히 남한에 이런 곳이 더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 백수라는 작은 소수성 만으로도 인도적인 온정이 이렇듯 따뜻한

데, 굶주리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겐 오죽하겠는가. 북한, 남한을 떠나서 우리에게선 서로를 연결해줄 무언가가 절실하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선 '점프 컷' 대신 '오버랩'만 가득하기를...



“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러분들께 ”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늘 곁에 있었지만 현실 때문이라는 핑계로 간과하고 말았던 우리 안의 또 다른 현실을 일깨워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크나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김동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의 2개월간 인턴 생활은, 그들을 도와줄 '필요성'을, 그들을 도와줄 '의무'로 바뀌도록 해주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 강윤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직원 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그저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직원분들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 정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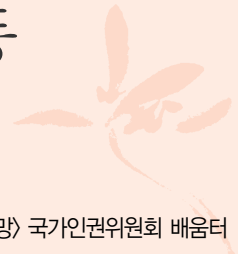
북한에 있는 가난문제, 식량문제와 인권문제는 심각하다. 이 문제에 도전하려면 낙천적인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Jasmine Barrett

더불어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 속한 분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인턴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 피나혜

인턴 활동을 했지만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받기만 한 꼴이 됐다. 운이 좋다. 나는 특히 남한에 이런 곳이 더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 백수라는 작은 소수성 만으로도 인도적인 온정이 이렇듯 따뜻하게, 굶주리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겐 오죽하겠는가. 북한, 남한을 떠나서 우리에게선 서로를 연결해줄 무언가가 절실하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선 '점프 컷' 대신 '오버랩'만 가득하기를... - 유동근

1월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5일 평화나눔센터 5차 라운드테이블
〈2009년 북한 공동신년사설의 분석과 정세 전망〉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7일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한글학교 개강

11일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시설농업교육 연수단 한국입국(10명)



15일 평화나눔센터 38차 정책포럼
〈2009년 북한 주민의 쌀독 상황 : 식량 부족의 현상과 본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

16일 - 영유아지원사업 급성영양치료제 30톤 지원
-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민족 돼지공장' 사료 60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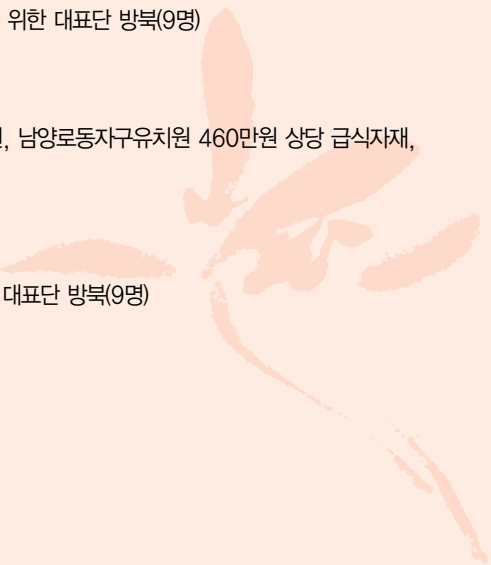


21일 09년 경기도 주요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방북(9명)

23일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460만원 상당 급식자재, 겨울의복, 담요 등 지원



31일 남포시·대안군 영양개선사업 대표단 방북(9명)



2월



● 9일 2009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집담회

● 16일 평양 돼지공장 기초건설용 건설물자 시멘트 444톤, 철근 35톤 등 지원

● 18일 평양 덕동 양돈장 및 농업·축산지원사업 일정 협의를 위한 대표단 방북(12명)

● 9일 - 평양 덕동양돈장 제1차 건설 물자 및 평양 사동구역시설체소 연동온실 3,000평 지원
- 평양 대성구역 채소 단동온실 900평 지원

3월



● 14일 -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 전기 설비 지원
- 적십자병원 구강병동 강화도어 지원
- 코리아S청소년오케스트라 나눔음악회 성금 2백만원 전달



● 21일 -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기술진 방북(2명)
- 바이오가스 발전소(축분발전소) 건설일정 협의를 위한 기술진 방북(10명)

● 25일 남포산원 건설 기술진 방북(7명)



● 27일 - 개성시 개풍양묘장 육묘 온실 300평, 종자, 비료, 농약 등 물자 지원
- 제 61차(12기 1차) 공동대표 회의 개최

● 28일 평양 사동구역 채소온실 기초공사를 위한 기술진 방북(7명)

따뜻함이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북한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의 나눔을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물어나는 이야기

“나눔음악회로 퍼지는 사랑의 하모니” ‘코리아S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음악회 후원금 2백만원 전달

지난 3월 14일, 양재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는 아주 특별한 나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 맞는 ‘코리아S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고승덕, 운영위원회회장 양명희)’의 정기음악회입니다. 음악회를 관람하는 관객의 손에는 다양한 책들이 들려있었습니다. 주최측에서 러시아 고려인동포와 중국 조선족동포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 인데, 헌책을 가져오면 티켓으로 교환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러시아 고려인 동포들과 조선족 동포들에게 전달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2백만원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후원해주셨습니다. ‘코리아S청소년오케스트라’에게 감사드리며, 나눔의 무대에서 보여준 관심과 사랑을 동포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코리아S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04년 9월, 서울서일초등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창립하였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을 포함 50여명으로 구성, 연주활동을 통해 일상속의 나눔운동이 퍼지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 기쁨이 샘솟는 학교” 대전둔광성결교회 아이들의 나눔

대전둔광성결교회에는 10여명의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기쁨이 샘솟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매일 3째주 주일이 되면 북한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북한사랑 예배’입니다. 북한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도 와 나눔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0일, 대전둔광성결교회 ‘기쁨이 샘솟는 학교’ 아이들은 북한아이들을 위해 모금한 현금 41,500원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보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희망을 걸어보세요!”

푸른 하늘, 맑은 날
따뜻한 미소 한번, 아이의 얼굴 한번 떠올리며
빨래 튼튼~ 털어 냅니다.
빨래줄에 희망이 걸립니다.

남북의 따뜻한 내일을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희망을 걸어보세요